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오승환 전문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1. 9. 29~ 10. 5 (5박7일)
3. 출장지: 벨기에 브뤼셀, 스페인 마드리드
4. 출장목적: 기본연구“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의 분석”
출장 관련 해당지역 전문가 인터뷰

II. 활동 내용

1. 인터뷰 대상 기관 및 전문가

☐ CEPS(브뤼셀)

- Dr Oh, Yonghyup (Research Fellow),

☐ Madrid Club, FRIDE

- Pedro Solbes(스페인 전 재무장관),
- Dr Susanne Gratius (Senior Researcher)

2. 주요 인터뷰 내용

□ CEPS

▶ 유로지역의 최근 문제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인터뷰가 이뤄졌음.

- 유로지역의 최근 재정위기와 유로화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서, 유로지역내 개별국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역내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로지역은 경제규모나 구조가 다른 개별국들로 이뤄진 만큼 최근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 접근 보다는 EU 전체 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함.
- 따라서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협상과 합의가 필요하며, 작금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유로시스템의 붕괴는 고려대상이 아님.
- 최근 유로 재정위기로 유로화에 대한 안정성이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당분간은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향후 유로지역내의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고 현재의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유로화는 다시 미 달러화에 견줄 수 있는 국제통화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유럽통합은 오랜 기간동안 유럽의 숙원 과제이며 아직도 진행 중인 궁극적인 최종 목적임. 따라서 최근의 문제는 오히려 더욱 강한 하나의 유럽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유럽 ODA정책 인프라분석과 한국의 ODA정책 효율성 제고방향 연구" 의 국제세미나가 2012년 유럽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CEPS측의 협력을 요청하였음.

□ Madrid Club, FRIDE

- ▶ 최근 스페인을 포함한 남유럽 지역의 재정위기 문제와 유로지역 ▪ 유로화의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서 인터뷰가 이뤄졌음.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유럽 지역의 재정위기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예상되어 오던 것으로 유로지역의 통화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음.
- 스페인의 경우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영향이 확산되었으며, 스페인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적으로는 다른 남유럽 국가들 보다 양호한 수준임.
- 다만, 스페인은 이민자 급증,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고용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이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이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올해 말 스페인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로지역과 역외지역은 무역 및 금융시장에서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역내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별국 간의 경제 마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향후 유럽통합의 지속가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실제로 유로지역내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채권국과 채무국이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형태임.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도 중요한 과제임.
- 또한 최근의 재정위기와 이에 대한 독일 및 프랑스의 정책 지원여부로 인해, 유럽지역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유럽의 경제통합은 지역내의 오랜 과제였으며, 따라서 이번 재정위기 문제로 인해서 유로화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로화는 향후 유럽의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이며, 현 상황에서 유로화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유럽 경제통합의 후퇴를 의미함.
- 유로화는 유럽인들의 역사적 건축물(European construction)이어서 잠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해서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동안 위기시에 필요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면 더 안정된 통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
- 지역간 불균형을 재정통합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실물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페인은 실물분야의 적응(adjustment)를 통하여 경쟁

력을 회복하고 있음.

- * 실제로 스페인의 물가는 브뤼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었음.
- 추가적으로 "유럽 ODA정책 인프라분석과 한국의 ODA정책 효율성 제고방향 연구"에 대해서 유럽의 주요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FRIDE 및 Madrid Club 측의 협력을 요청하였음.

3. 시사점

- 유럽지역에서는 최근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각 개별국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유럽의 궁극적인 경제적 통합유지와 유럽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로화의 붕괴에 대해서는 역외지역의 우려와는 달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국제금융 체제 및 통화체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럽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로화를 달러화에 견줄 수 있는 국제 기축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유로화 위기가 극복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럽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유로존의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작금의 유로지역 위기를 외부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장기적으로는 유로화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서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독일을 비롯한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들이 위기지역에 대하여 경제운용에 대한 엄격한 준칙들을 도입하는 등의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역내 갈등이 증폭과 해소의 반복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에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연구와 관련해서는 유로화의 붕괴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상보다 역내국가들의 유로화에 대한 신념이 강하여 중장기적으로 달러화에 필적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됨.

<끝>